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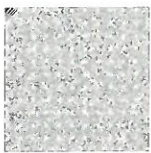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22호

2022년 11월 20일(다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2사무 5,1-3

화답송 |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2독서 | 콜로 1,12-20

복음화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루카 23,35L-43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김한수 토마스 신부 | 화요일아침 예술학교 교장

| 멀어지면 다가오는

연중 마지막 주일, 보편 교회는 매년 세 개의 다른 복음사화를 통해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가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최후의 심판 날 사람의 아들이 인류의 목자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합니다.(마태 25,31-46) 나해,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 당신은 영원한 왕이심을 암시합니다.(요한 18,33-37) 다해인 오늘 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 계신 메시아의 모습을 전해 줍니다.(루카 23,35-43) 다양한 일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속 정치권력을 넘어 세상의 방식, 이해, 바람과는 전혀 다름을 일깨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은 그렇게 색다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감을 압니다. 그 색다른 다스림 아래의 삶을 오늘은 더욱 색다르게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다운 면모는 권력과 다스림이 아닌 사랑과 봉사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님(Pope Emeritus)은 표현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권력의 절대화와 사유화, 권한의 오용과 남용, 정쟁과 이어지는 정치보복 등 세속 정치권력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통치행위와는 사뭇 다름을 그리스도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박하게는 나와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나를 못되게 대하는 상대를 사랑하고, 나보다 못나고 모자란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왕다운 면모가,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르며 배워야 합니다. 그 다스림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질 때, 사

랑과 봉사가 아닌 권력과 지배가 다스림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강요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되갚아 주고, 존중하기보다 존중받고자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온갖 죄를 짓기 위해 하느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멀어졌기에 온갖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떠났기에 자기 욕심만을 채우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다스림 아래 살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하느님의 다스림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정치철학에서는 이를 허위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을 마치 ~처럼’ 대하는 의식이 피어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허위의식이 뿌리를 내립니다. 허위의식이 자리할 때,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대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대할 때, 허위의식이 자라납니다. 하여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대하며 살았던 시간은 없었는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대하려는 허위의식의 싹이 피어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인천 강화,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42)**

온 누리의 임금인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그분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꼭 차버린 제 안에서 미움과 질투를 덜어내고 증오와 갈등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을 덜어내겠습니다. 그 빈자리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빛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저를 기억해 주소서.

홍덕희 야네스 | 가톨릭사진가회





소명의 위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꼽으라면 2014년, 그해 여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시복식의 행사 연출과 운영, 무대 제작과 의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시복식이 거행되는 8월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고 잘 틈도 없을 만큼 긴박하고 고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와 일정들은 체력의 한계와 압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여정을 버틸 수 있게 해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교황님이 방한하시고, 그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복식 행사의 총괄 감독이 아들이라는 사실에 한없는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교황님의 방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월이 되자, 긴장감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의사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픈 어머니의 곁을 지켜야 할 제가 시복식 준비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을 볼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12일, 광화문광장에 대형 십자가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시복식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8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교황님과 수십만 명의 초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식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이고 거룩한 순간이었고, 다행히도 시복식의 모



김용배 사도요한
가톨릭 스카우트 부연맹장, 팬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대표

든 여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동조차 힘들었던 어머니는 끝내 시복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0월, 어머니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던 하느님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가장 갑작한 순간에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린 아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일을 하라며 재촉하셨던 어머니. 하느님은 저에게 10년 동안 서울대교구의 사제 서품식을 진행하게 하시며 저를 단련시키셨고, 어머니의 인생 끝자락에 교황님의 방한을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충만한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지독하고 치열하게 지켜낸 저의 소명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곁을 지키기보다는,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맑은 날이든 궂은날이든 개의치 않으시며 매일 새벽마다 감곡성당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평생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가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웁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한껏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9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교회는 성체성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처럼 미사에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교회는 차선택으로 방송 미사와 신령성체(神領聖體, 미사 참례할 수 없을 때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행위)를 권고했습니다. 방송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만, 일시적 대체 수단일 뿐 신앙생활 자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수난 전날 저녁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이때 당신 몸과 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구원 사건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대속), 십자가 희생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 희생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셨고, 이 예식을 행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19-20)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영속되는 제사적 기념”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82항)

미사 혹은 성체성사는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지만(히브 10,14 참조), 우리는 미사 예식을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고 현존시키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희생 제사이고, 이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혹은 구속, 대가를 치러서 자유롭게 되는 것) 혹은 속량(혹은 속죄, 대가를 치르고 풀려나는 것)하는 것입니다. 미사 역시 십자가 희생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고 함께하는 것, 결국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미사이고 성체성사입니다.

신앙이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조용히 머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 2,20 참조)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미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는 물론, 부활의 의미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생명의 빵’(요한 6,35.48), ‘살아 있는 빵’(요한 6,51)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이를 통해 얻게 된 구원 은총, 부활의 의미와 가능성 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미사이고 성체성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죽음을 이겨내는 영생의 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체성사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교회 공동체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목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연대하여 노력할 때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다루는 주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여정이지만, 이 여정이 사회가 공동의 집의 모든 구성원을 제대로 돌보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전환으로 마무리될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본당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 안에 놓여있습니다. 본당의 사목자는 본당 신자들만이 아니라 본당 구역 내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자들도 같은 본당 신자들만이 아니라, 본당 구역을 포함해 이웃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지역 사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당 밖 교회 구성원들도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일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각자 머무는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하느님께 받았습시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금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룰 과제를 위한 신앙인들의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으로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생태적 전환의 길을 걸어야 가야 할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14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감스럽게도 환경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신앙인은, 사회적 약자와 피조물의 보호에 앞장서 온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며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일은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은 본당 사목평의회 안에 생태환경분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생태 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이나, ‘우리 농 생활공동체’ 등이 본당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명 농업을 지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구를 살리고자 시작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문화를 일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매진해 온 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용기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영화 '더 골드핀치'

가끔은 틀린 길이 바른길이 아닐까?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2019년 감독 존 크로울리



‘더 골드핀치’
(The Goldfinch)는
시의회 화약 폭
발 사고로 32세

에 목숨을 잃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카렐 파브리티우스의 대표작입니다. 사슬에 묶인 한 마리 황금방울새(골드핀치)를 강렬하고 면밀한 빛과 색채로 그린 이 그림을 소재로 미국 여성작가 도나 타트는 소설을 썼고, 아일랜드 출신의 존 크로울리 감독은 폴리처상(2014년)까지 받은 그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그림은 모두 사실은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림에는 그린 사람의 삶과 진실, 감정과 상상력이 스며있습니다. 화가의 비극적 죽음이 더해진 ‘황금방울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투영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느냐는 감상자 각자의 몫입니다.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를 한 줄로 축약하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미술관 폭발 사고 현장에서 13세 소년 테오(안셀 엘고트 분)가 의문의 노인으로부터 몰래 건네받은 명화를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돌려준다.’입니다. 감추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사건의 연속이 단순한 추리나 긴장감을 넘어 삶과 예술, 시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운명적으로 얽히게 되는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 관계 변화를 통해 선과 악, 불안과 죄의식, 상실과 집착, 선택과 운명을 성찰합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테오를 거뒀던 골동품 가구 수리 전문가 호비(제프리 라이트 분)는 어떤 물건을 좋아하면 그

물건은 생명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더욱 큰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다는 철학을 깨닫습니다. 마약과 도둑질을 일삼았던 보리스(핀 울프하트 분)는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 테오에게 “우리의 악함과 실수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를 선에 다가가게 만든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길을 통해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가끔은 틀린 길이 바른길이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더 골드핀치〉는 ‘선한 행동이 항상 선을 낳는 것은 아니고, 악한 행동이 항상 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내가 아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테오와 보리스가 그랬으니까요. 그림을 몰래 숨기고, 그림으로 마약 거래를 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예술과 사랑의 불멸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황금방울새’를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시간 30분이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설명 없이 시간을 자주 건너뛰면서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와 행동과 관계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더 골드핀치〉는 소설도 읽어야만 한 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대화를 나누게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오는 ‘황금방울새’에서 작은 심장박동, 모든 존재를 서로 단절시키는 외로움, 움직이지 않는 시간, 빛 한가운데 갇혀서 꿈쩍도 하지 않는 자그마한 죄수, 다른 포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로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존엄성과 자그마한 용감함,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조차 하지 않고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새도 보았습니다.

성서 주간 편

#성경과외_해주는_신부 #성서못자리 #사목국_성경통독 #성경_속_풍속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곧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 한국 교회는 성서 주간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우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만한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채널은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입니다. 잘 만든 프레젠테이션과 좋은 목소리로 성경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한창이었던 2020년 6월부터 꾸준히 강의 영상을 만들어 주고 계시지요. 한 편에 10분 조금 넘는 분량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큐알(QR)코드를 통해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님' 채널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구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 '성서못자리'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성서못자리는 사제들의 성경 연구 모임으로 시작하여 그 결실을 교우들과 나누기 위한 강의와 나눔으로 구성된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범유행 동안 대면 정기 강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서못자리 담당 신부님이신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더 많은 분이 성경에 맛 들일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강의를 시작하여 지금껏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즌 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큐알(QR)코드를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강의 영상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속해있는 사목국에서 가톨릭출판사와 함께 '성경 통독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성경 통독

지도를 발간한 것은 올해부터 2년간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통독에 참여하는 교우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목국 사제들이 성경 각 권의 입문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입문 강의는 완성되었고, 구약성경은 차례로 제작하여 올리는 중입니다. 저도 나오니까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큐알(QR)코드를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의 성경 통독 영상을 찾아봐 주세요.

우리 문화홍보국에서 운영하는 '가톨릭튜브' 채널의 처음 이름은 '온라인 성경 채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만든 성경 공부 영상들이 있는데 허영엽 마티아 신부님의 '성경 속 풍속'을 추천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인 그 시대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영상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성경 속 풍속' 재생목록으로 연결됩니다.

유튜브의 다양한 성경 영상들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성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QR코드를



→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채널

→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채널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경통독 구약성경 재생목록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경통독 신약성경 재생목록



→ 가톨릭튜브 '성경 속 풍속' 재생목록



베드로와 바오로의 회개 | 남용우, 모자이크, 2012년, 흑석동성당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유리화와 모자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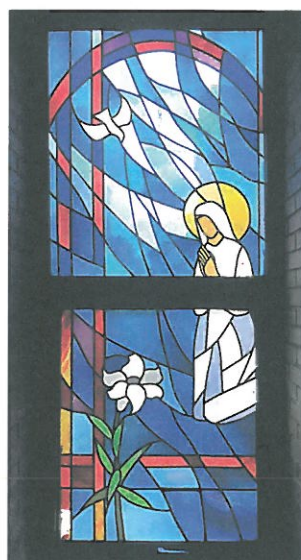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품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용우(마리아, 1931-) 화가는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유리화와 모자이크 작품으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31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그는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한 후,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성미술 전람회에 회화 작품 〈성모칠고〉와 〈환희〉를 출품하였습니다. 1958년부터는 독일에서 유리화와 모자이크를 배웠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위한 유리화를 제작했습니다. 작가는 독일 현대 유리화 양식에 우리나라 정서가 스며 있는 유리화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작가는 한국 103위 순교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성 남종삼(요한, 1817-1866)의 후손입니다. 신앙 선조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작가는 한평생 예술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신앙 성숙을 도와주었습니다. 순교자의 후손답게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을 주제로 한 유리화도 만들었는데, 해당 작품은 미아동성당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전을 꾸미는 데 유리화와 모자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리화는 하늘의 빛을 통과시키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모자이크는 빛을 반



수태고지 | 남용우, 유리화, 1996년, 오금동성당

사하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남용우 화가의 유리화를 통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일생, 천사와 칠성사 등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로는 12제자, 사도 바오로의 회개와 베드로의 눈물, 십자가의 길 14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구상과 추

상의 형태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주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리화나 모자이크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생략하고 신앙 주제를 돋보이게 하여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남용우 화가의 작품은 전국의 여러 성당과 교회 기관에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에는 대치동성당, 미아동성당, 반포성당, 사당동성당, 상도동성당, 신당동성당, 연희동성당, 오금동성당, 장안동성당, 흑석동성당(가나다순)에 있습니다. 특히 흑석동성당에서는 작가의 칠성사 유리화, 로사리오 기도 유리화와 함께 십자가의 길 14처 모자이크와 12사도 모자이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11월 20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오늘부터 ‘성서 주간(11월 20일~11월 26일)’이 시작됩니다

성서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월 27일(주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11월 25일 최종철 마르코 신부(55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일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형주 개인전 '아름다운 것들 깊은 이야기와 함께' 전관
전시일정: 11월23일(수)~28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1월21일(월) 10시30분, 광장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내일생의 치유 피정'
때, 곳: 12월2일~4일(2박3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2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1월27일~2월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허규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라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1월24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86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12월1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2022년도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대림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때, 곳: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11월28일(월)	구요비 주교
12월5일(월)	유경춘 주교
12월12일(월)	손희송 주교
12월19일(월)	정순택 대주교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화)~25일(금) / 3개월 수업(12월~2023년 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겨울학기 양상별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향심기도 2박3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0만원
지도: 이승구 신부 / 문의: 010-4565-8898
때: 12월10일(토) 17시~12일(월) 16시
곳: 고난회 명상의집(우이동)

대학교사목부 초청 청년 신심 운동

마드리드 교구에서 시작, 전세계로 확장 중인 청년 신심 운동 하쿠나(Hakuna Movement)를 소개합니다
주제: 2022 하쿠나 인 코리아
때: 12월7일(수)~9일(금)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문의: 02)777-8249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사목국 직장사목팀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소방사목 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
대상: 전진받은 교우
문의: 02)727-2078, 010-6234-6910 직장사목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개최

주제: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루카 1,39 참조)-시노달리타스와 교회 여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11월22일(화) 14시~17시 / 문의: 02)460-7641
곳: 서울대교구청 5층 501호실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5차 미사 11월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강계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된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2 한반도 평화나눔포럼 / 문의: 02)753-0815
주제: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 인식과 역할
때, 곳: 11월26일(토)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해화동)
3)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11월25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직원모집

장애인거주시설 H2별 조리원 모집 / 문의: 02)6925-2366
교대 근무 / 강서구 개화동(전철 5호선 방화역 도보 10분)

가톨릭신문사 신입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영상기자, 광고홍보사원
접수: 11월30일(수)까지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정규직 직원 모집

분야: 법인사무국 담당자, 총무팀원, 사회복지사(분야별 각 1명) / 채용시까지 접수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직원 모집

업무: 후원회원 관리 및 회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11월23일까지 이메일(johnofgod_kr@naver.com) 접수

의정부교구 행신1동성당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가스안전 및 기타 자격증 우대) / 채용시까지 접수(본당 홈페이지 참조)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업무 등 제반업무 가능한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내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nt@seoul.catholic.kr) 접수

문정2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계약직 1명 / 업무: 시설관리, 유지, 방호 등 관리업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11월26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583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7길 34 문정2동성당) 및 이메일(grgkim@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업무: 가톨릭학생회(중·고등학교) 활동 지원 및 교재 연구
분야: 정규직 1명 / 근무: (화~토) 주5일 9시~18시 (일·월 휴무), 가톨릭청소년회관(해화동)
대상: 세례받은 대졸(예정)자 이상 / 11월16일(수)~12월2일(금) 18시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2월3일(토) /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c.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일정 관련 개별 연락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수도회 12월 피정 / 문의: 010-2314-1645

청년: 3545 피정: 12월10일(토) 15시~11일(일) 15시, 메리
위드 센터(서울 오희동) / 대상: 45세 이하 미혼 여성
카카오톡채널: 밋타하기_예수수도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2일~5일·12월16일~19일·2023년 1월6
일~9일·1월27일~30일,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1박2일 무료 치유 피정(청주교구 성령해신봉사회)

때, 곳: 12월2일(금) 18시~3일(토) 15시(파견 미사),
청주교구 초청성령회관 / 버스운행: 17시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17시20분 청주고속터미널 앞(다이소)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대구·부산·마산교구 순례·왜관 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2023년 2월18일~20일(대구 17곳)·3월1일
~5일(대구~울릉도 독도 포함)·3월23일~26일(부산
~마산) / 출발: 서울 명동(대행버스)
문의: 010-3807-1784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분장
때: 12월2일~4일·12월16일~18일·12월31일~2023
년 1월2일(한라산 눈꽃 피정)·1월7일~9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말씀 피정	11월24일(목)~27일(일)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최, 회생)
성경완독	12월9일(금)~17일(토)	
송년 피정	12월28일(수)~30일(금)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3일~5일, 12월9일~11일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눈꽃산행	1월5일~7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47기·95기 수료특강

내용: 특강, 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1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템나눔악원(주최, 신촌)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 단기·장기 유학 안내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주최) 운영 학교 외 다수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때: 2023년 1월부터 1년간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대면	히브리어 (수) 10시~12시
Zoom	히브리어·회람어 (수) 19시30분~21시30분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2주)	미국 1A 영어캠프(3인 1실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인 1실 리조트) 명문 대 선생님 수학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모집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접수: 11월30일까지 / 문의: 010-2657-0951

남성합창 단원 모집

베아투스남성합창단(2012년 창단)
대상: 성인 남성(나이 제한 없음)
연습: (목) 18시30분~20시30분, 중구 동호로 30
길 43 / 문의: 010-8773-7049 김명중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1월23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1월21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
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11월28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010-5818-8431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인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가톨릭여성연합회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양주열 신부(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주제: 함께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 / 문의: 02)778-7543
때, 곳: 11월22일(화)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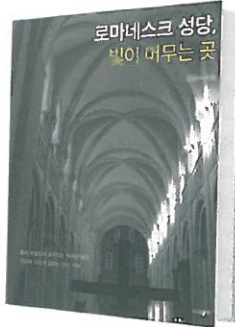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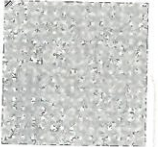
청소년 언어·매체상담·종합심리검사(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 문의: 02)2051-3743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곳: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
료), 종합심리검사 /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
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부·가족·개인)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2023년 1월6일(금)~8일(일) / 성소 피정	관구관(서울)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1월27일(일)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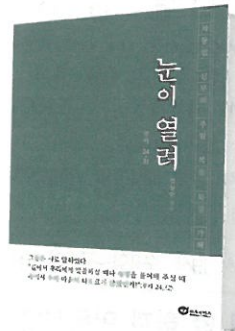


신간

로마네스크 성당,
빛이 머무는 곳

강한수 지음
파람북 | 240쪽 | 1만9천원
문의: 02)2038-2633

저자는 지난 3년여 동안 의정부교구 주보에 '성당이야기'를 연재해왔다. 이 책은 연재를 가운데 로마네스크 부분을 책의 형식에 맞게 재정리한 것으로, 성당의 형성 과정과 건축 구조를 둘러싼 배경과 더불어 스물네 곳의 대표적 로마네스크 성당의 구석구석을 조명하며 살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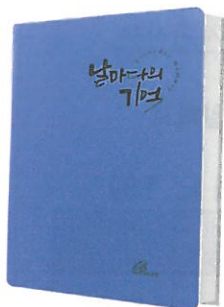


신간

눈이 열려

김상인지음
위즈앤비즈 | 592쪽 | 2만5천원
문의: 031)986-7141

이 책은 주일과 중요 대축일 때에 '신나는 복음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신자들에게 들려주었던故 차동업 신부의 묵상 모음집으로 다가오는 대림 제1주일부터 시작되는 '가해의 복음을 묵상하고 있다. 신나는 신앙을 힘 있게 선포하던 차 신부의 기쁨의 신앙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동반할 것이다.



신간

날마다의 기억
-기도 지향 노트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딸 | 232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이 노트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품을 넓히도록 안내한다. 이 노트에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 넣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다이어리 형식이지만, 1년만이 아니라 그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계속 기도 지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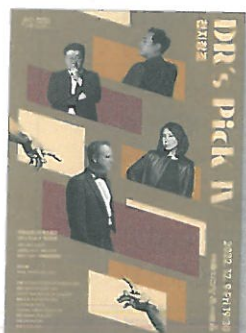


성가제

제21회
cpbc창작성가제

문의: 02)2270-2304
사전예약 신청 가능(홈페이지 참조)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가 11월 26일(토) 19시, 가톨릭청소년회관 스테파노홀에서 있다.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6팀이 찬양 사도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열정 가득한 경연을 펼친다. 선배 찬양사도들과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TV, 라디오, 유튜브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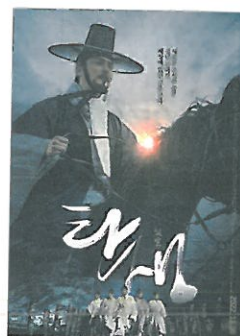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DR's Pick IV '천지창조'

입장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공연문의: 02)523-6258 국립심포니
예매문의: 1544-1555 인터파크
인터파크 예매 시 종교단체 할인 권증을 선택.
관람 당일 티켓 수령 시 서울주보 또는 모바일
본 안내문 제시(미 제시시 차액 지불함), B석 제외
1인 2매까지 10% 할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DR's Pick IV '천지창조'>가 12월 9일(금) 19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된다. '천지창조'는 가브리엘(소프라노), 올리 엘테너, 라파엘(베이스) 세 명의 천사와 아담과 하와 등 솔로 배역 다섯과 4부 합창 및 관현악의 대규모로 편성되었다. 작품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탄생

개봉일: 11월 30일(수) / 문의: 02)371-6927
상영관: 전국 CGV(1544-1122), 롯데시네마
(1544-8855), 메가박스(1544-0070)
예매: 각 상영관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 참조
3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1인당 1만원 할인(단,
기준가격이 1만원 이하인 조조·경로·우대 등은
할인 안 됨)

한국의 첫 사제 聖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탄생>이 개봉한다.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젖힌 개척자 청년 김대건의 위대한 여정을 그린 대서사 어드벤처.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었던 모험가이자 글로벌 리더, 역사를 바꾸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굴의 도전정신을 불태웠던 선구자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유학 시절과 사제의 탄생과 순교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그린다.

제2255(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락처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연회동 남자들이여!! 다함께 밥 한끼 먹읍시다.”

일시 : 11월 20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지하식당

준비사항 : 넉넉한 마음과 환한 얼굴

◎ 대림특강

강사 : 안병철 신부님

일시 : 11월 30일(수) 저녁 8시 / 대성전

주제 :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된 공동체’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교회실

◎ 남성울드레아

일시 : 11월 20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드레아

일시 : 11월 22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 11월 25일(금) 10시 미사 후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0월~11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수진	스텔라	2-1
박형노	사도요한	2-5
권중혁	대건안드레아	2-5
허주성	안드레아	4-1
조재무	토마스	4-2
정지원	크레센시아나	5-1
김경희	미카엘라	5-2
곽창순	바오로	6-5
김태연	아네스	7-1
강재균	요한보스코	10-5
유지아	글라라	10-6
양윤영	모니카	10-7
정인경	아네스	기타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11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성모 신심 미사 : 12월 3일(토) 오전 10시

◎ 12월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은 없습니다.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네스 대표 (010-4538-5665)

◎ 2023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20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액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회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대성전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청소년 견진교리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견진교리기간동안 화요일 저녁 7시미사는
대성전에서 드립니다.

◎ 12월 4일(주일) 오후 2시에 주일학교 통합미사가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1. 1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16	868 (41.0%)	830 (39.2%)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김일영일백만원 누 계76,808,300원

◎ 감사헌금 (11월 7일~13일)

익명삼십만원	익명일십만원
송은영일십만원	정수진칠만원
김태홍일십만원	정수영일만원
김정자엘리사벳오만원	황기진일백만원
박명숙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33주일)

교무금7,935,000원

주일헌금6,008,500원

입당	78	봉헌	211, 217	성체	496, 504	파견	73
----	----	----	----------	----	----------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